

한미FTA 강행처리나 장기화나

10일 본회의 개회... 이번주 분수령될 듯

與 직권상정 압박 野 ISD불가 장외홍보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여당의 강행 처리'와 '장기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해 여야의 극심한 견해차로 타협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오는 10일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은 FTA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무너지고 ISD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현 상태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는 반대한다"면서 "양국 행정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유지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협의한다는 약속만 하면 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태의 비준안이 처리되면 내년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ISD 조항을 폐기하려면 사실상 한미 FTA 파기 선언을 해야 한다"며 "이는 한미 양국 간 우호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불행한 사태인 만큼 지금 양국 간에 ISD 협의의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약속을 받아오라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계속 해오던 얘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지난 주말부터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를 압박해 가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ISD의 '부당성'을 설득하는 장외 홍보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 등은 합의처리에 비중을 두고 대야(對野) 설득에 매진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더 이상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는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도 신속 처리하는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원내지도부는 타결을 위한 야당과의 물밑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이번 주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의장이 직권상정에 이미 부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한나라당으로서의 몇 차례 더 외통위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비준안 처리를 24일 본회의로 한번 더 미루거나, 아예 12월로 넘겨 새해 예산안과 동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26 재보선의 패배로 내부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강행처리시 우려되는 여론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장기전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4일 "ISD 같은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토론을 거쳐 19대 총선에서 일단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을 내년 총선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을 가둔한 것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내용을 알리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시 우려되는 여론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노당 사무처 직원들이 6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실 앞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며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통해 대북 인도지원 적극 검토”

유유의 장관, 반기문 총장 면담서 밝혀

의약품·의료장비·영유아용 식품 지원도

미국을 방문 중인 유유의 통일부장관은 5일 "유엔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뉴욕 시내 유엔사

무총장 관저에서 진행된 반기문 유엔 총장과의 면담에서 반 총장이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공감대를 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배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반 총장은 "영유아의 영양결핍 문제가 3대째에 이르면 DNA(유전자)가 바뀐다. 이는 통일 시 납축에도 부담으로 돌아

온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장관은 반 총장의 제안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한 의약품, 의료장비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었다"면서 "국제기구를 통해 의약품, 의료장비를 시작으로 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식품공급을 한국으로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내에서,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유엔과 조처를 취하는 것이 남북 간 경제교류를 타개하고 긴장을 낮춰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뉴욕 시내 유엔사

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소득세의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들 때 증진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률적 소득합산 과세시 다른 구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처럼 새로 신설하는 최고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도 인식을 공유하고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 불고 있는 정책 혁신 움직임의 일환이자, 한나라당의 '친

‘광주U대회+예향’ 영화로 만든다

‘매화광주’ 7일 크랭크인 최우제·예지원 주인공



최우제

예지원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와 광주를 소재로 한 독립영화가 제작된다.

6일 U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조직위는 아리랑TV와 공동으로 독립영화 '매화광주'를 제작하기로 하고 오는 7일 크랭크인에 들어간다. 영화 '매화광주'는 매년 아리랑TV가 만드는 기획시리즈 '한국의 도시를 말한다'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U대회 조직위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011대구육상대회를 배경으로 한 '오강선생'과 2012여수엑스포를 소재로 한 '러수'가 제작된 바 있다.

'매화광주'는 형제를 동시에 사랑했던 한 여자가 2015 광주U대회에 출전 예정인 아들(캐나다 몬트리올 대학 펜션선수)을 데리고 20년 만에 광주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그려낼 예정이다. 차승재(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대표가 제작을 맡고, 영화 '얼굴 없는 미녀'를 연출한 광주 출신의 김인

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 배우 최우제, 예지원이 각각 남녀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영화는 이달 한 달 동안 U대회 메인스타디움인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무등산 드라이브 길, 5·18 민주묘지, 영주체육관 등 광주의 대표적 명소와 전남 나주, 화순 등 일부 지역에서 촬영된다. 영화는 내년 상반기까지 편집과 후반작업 등을 거쳐 아리랑TV 해외채널을 통해 188개국에 방영된다.

김윤석 U대회조직위 사무총장은 "단순히 광주U대회를 홍보하는 영화가 아니라, 문화예술도시 광주의 감성과 세계대학생들의 축제 광주U대회가 녹아들어 간 수준 높은 영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與, 부자증세 ‘버핏세’ 도입하나

대기업 자본흐름 규제 강화... 공적거래법 개정 검토

대기업·부유층 반발 예상

여권이 부자 증세를 위한 이른바 '버핏세'(부유세)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버핏세는 세계3위 부자인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재정적자 감축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과세 불균형 등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버핏세 도입 방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소득세의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들 때 증진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률적 소득합산 과세시 다른 구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처럼 새로 신설하는 최고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도 인식을 공유하고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 불고 있는 정책 혁신 움직임의 일환이자, 한나라당의 '친

(類) 부자·대기업', '부자감세·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보이지만 대기업과 부유층의 반대가 예상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버핏세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여권은 또 대기업 내부의 자본 흐름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적거래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당직자는 "지금은 부당거래를 입증하기 힘든데 앞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거래의 불공정 뿐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상 불공정 문제도 잡아내야 한다.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어떻게 막아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보육·노인 예산 1조원 증액 추진

한나라, 보육료·기초노령연금 인상 포함

한나라당이 2012년 새해 예산에 보육과 노인복지 예산을 1조원 가량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26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등 돌린 30~40대의 민심을 수습하고 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으로 풀이된다. 재정건전성을 기하려는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국회 예

산결산특위의 예산안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정부 예산안 가운데 불요불급한 지출을 2조원 안팎 삭감한 뒤 확보된 예산의 상당 부분을 보육·노인복지 예산으로 돌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와 당 소속 예결위

원들을 중심으로 마련된 '1조원 증액안'에 따르면 보육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모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무료화도 검토하고 있다. 노인복지 부문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후지제록스(주)
www.fujixerox.co.kr

FUJI XEROX

고객만족도 1위의 감동은 계속됩니다

11년 연속 복사기 부문 고객만족도 1위 기념

고객 감동 이벤트

이벤트 내용

- * 행사 기간 내에 대상 기종 구매 고객 (현 사용 기종 포함 조건)
- * 구매고객은 Fax Kit 무상제공 (고객으로부터 Fax Kit 무상설치 확인서를 받으실때)

이벤트 기간 2011년 10월 ~ 12월 (3개월)

대상 기종

- * DocuCentre-IV 2060CP
- * DocuCentre-IV 3060CP
- * DocuCentre-IV 3065CP
- (자세한 모델명, Printer Kit 포함 여부)
- * DocuCentre-IV C2260CPS
- (자세한 모델명, Printer Kit, Scan Kit 포함 여부)
- (Fax Kit 무상 제공 수량은 700개 한정 지급됩니다.)

▶ 선착순 진행 행사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정부납품 모델(포장특례제품)은 본 행사에서 제외됩니다. ▶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판매 사무소 또는 지역내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충청지사 지역 판매 사무소 (광주 : 062-365-3500 / 전주 : 063-272-0552)

[대리점] 광주광역시

동구 렌즈사(062)232-1950 / 동구 태광사(062)222-1990 / 북구 (주)드림정보시스템 (062)525-2710
북구 대신OA시스템 (062)526-7799 / 북구 성우시스템 (062)524-6114 / 서구 대신OASYSYSTEM (062)222-1122
서구 유정정보시스템 (062)371-6377 / 서구 효성OA (062)374-1227 / 서구 SKY정보 (062)367-0295

[대리점] 전라남도

강진구 유원사(061)432-2621 / 고흥군 고흥사(061)835-1717 / 곡성군 우리OA시스템 (061)363-1191
광양시 세광OA시스템 (061)791-6400 / 구례군 하나컴퓨터 (061)782-7780 / 나주시 모닝컴 (061)335-7161
목포시 그린사(061)284-1531 / 목포시 전남사(061)285-1543 / 순천시 현대OA (061)744-2119
여수시 삼광OA (061)884-3993 / 여수시 세광오에이 (061)881-3190 / 여수시 유정OA (061)891-3451
여수시 전남 OA (061)852-4749 / 영암군 영원비즈니스 (061)353-7755 / 장흥군 코오리정보기술 (061)393-3367
장흥군 남도디지털 (061)862-7787 / 진도군 컴퓨터사랑 (061)544-9978 / 해남군 신세계프린터 (061)536-9935

[대리점] 전라북도

고창군 기산정보시스템 (063)564-9111 / 군산시 디지털전선 (063)468-6081 / 군산시 월드사(063)445-6123
군산시 디지털OA (063)471-0956 / 김제시 남광정보시스템 (063)542-8146 / 김제시 워프IT (063)543-5030
남원시 남원OA (063)633-1500 / 무주군 한빛OA (063)322-6634 / 부안군 부안사(063)584-8061
부안군 토달OA (063)582-0779 / 익산시 신화정보시스템 (063)836-4444 / 전주시 가나인사(063)271-3031
전주시 권회사(063)291-0926 / 전주시 동신정보 (063)274-1900 / 전주시 유정아이티 (063)286-8804
전주시 유정회사 동아테크 (063)714-3366 / 전주시 전북통신사(063)244-9068 / 정읍시 한일정보 (063)532-5495
전주군 은하사(063)433-6300